



마리오 모레노와 칸틴플라스

김유리

2011년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희극 배우 마리오 모레노(Mario Moreno, 1911~1993) 탄생 백주년이 되는 해였다. 멕시코에서는 그를 기리는 여러 기념행사가 거국적으로 열렸다. 칸틴플라스(Cantinflas)라는 예명으로 더 유명한 그는 누구도 누리지 못한 영화를 누렸다. 52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디에고 리베라와 루피노 타마요와 같은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그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았다, 서툰 영어 실력으로도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골든 글로브 상을 수상하기까지 하였고, 할리우드 명예의 광장 바닥에 이름을 새겼다. 그 뿐이 아니다. 그의 얼굴을 담은 우표가 발행되었으며, 스페인어 사전에 그의 예명 '칸틴플라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세 개나 등록되기도 하였다.

멕시코 사람과 접촉해 본 사람은 누구나 기지와 유머감각에 놀라며 현란한 말솜씨와 말장난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마치 멕시코 사람은 코메디언의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 같다. 초등생부터 할머니까지 재담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한국인들의 국민적 기본 오락거리가 노래 부르기라면, 멕시코의 근본적인 국민적 오락거리는 우스갯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남자들 사이에는 알부르(albur)라고 하는 성적인 속뜻



‘칸틴플라스’, 마리오 모레노

을 지닌 재담을 서로 도전적으로 주고 받는 ‘배틀’이 있다. 말문이 막힌 사람이 지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스페인을 비롯해서 라틴아메리카의 남자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찬사의 말을 던지는 피로포(piropo)라는 관습이 있는데, ‘천사여, 그대는 날개를 어디 두고 오셨나

요'와 같은 시적인 것부터, '당신이 밟고 서있는 보도 블록의 재료가 된 콘크리트를 실었던 트럭 바퀴의 원료가 된 고무나무여 축복 받을지어다'는 식의 말장난 투도 있다. 멕시코 남자들은 이런 '피로포'에 '알부르'를 가미하여 기상천외한, 즉 무심히 들으면 별 뜻 아닌데 속뜻을 알고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기상천외한 피로포를 던질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에 칸틴플라스 말고도 다른 빼어난 코메디언들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대중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칸틴플라스 한 사람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마리오 모레노는 1911년 멕시코시티에서도 위험하기로 소문난 테피토에서 태어났다. 현재 테피토에는 상가와 노점이 밀집되어 있는데, 범죄율이 높아 밤에는 택시도 가기를 꺼린다. 아이들 장난감부터 스마트 티비, 해적판 디비디, 의류, 가짜 명품 등 없는 게 없어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운이 좋으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고, 운이 나쁘면 강도를 당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보통 멕시코 사람들이 섬기는 과달루페 성모 외에도 '성스러운 죽음'이라는 뜻의 '산타 무에르테'라는 해골상을 숭배한다. 물론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숭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해골상에게 사람들은 소원성취를 기도한다. 또한 범죄자들은 경찰에게 잡히지 않고 계속 범죄를 성공적으로 저지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런 무서운 곳에서도 카운터 아래 권총을 숨겨두고 곳곳하게 장사를 하는 한인 교포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만 하다. 이런 곳에서 나고 자란 마리오 모레노는 주변에서 다채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입담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젊어서 춤, 권투, 노래, 당구, 투우 등에 관심이 많았던 마리오 모레노는 오페리아라고 하는 유랑극단에 들어가면서 연예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년대와 30년대 유랑극단은 주로 번듯한 극장에 갈 여유가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코메디를 선보였다. 이후에 그는 영화에 데뷔하였는데,

초기에는 단역이었으나 그의 독특한 매력에 힘입어 주연배우가 되었다. 그래서 평생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영화제작사를 차려 자신의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대본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승승장구하였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피아노도 잘 치고 심지어 투우사 노릇도 잘 하는 만능 연예인이었다.

다른 희극배우들과 달리 두드러지는 그의 특징은 ‘칸틴플라스’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이다. 이는 펠라디토(peladito)라고 하는, 도시의 가난한 건달 모습이다. 작은 모자, 몸에 꼭 달라붙는 상의, 목에 두른 손수건, 왼쪽 어깨에 두른 낡은 천 조각(그는 이것을 ‘가바르디나’, 즉 트렌치코트라고 불렀다), 엉덩이에 걸친 바지. 그리고 양 입꼬리 위에 달려있는 수염. 그는 거의 모든 영화에 이런 차림으로 등장했고, 다른 차림으로 등장할 때도 수염은 유지했다. 대중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차림새가 아니라 말투에 열광했다. 장황하게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는데, 결국 알맹이가 없는 대사를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을 두고 ‘칸틴플라스처럼 말한다’고 부르며, 말은 많은데 쓸 말이 없이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 특히 정치가들에게 칸틴플라스처럼 말한다고 냉소한다. 급기야 마리오 모레노가 죽기 1년 전인 1992년, 스페인 한림원은 ‘cantinflear’(아무 내용 없이 엉뚱하고 두서없이 말하다 또는 행동하다), ‘cantinfleo’(cantinflear의 명사형), ‘cantinflas’(칸틴플라스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3개의 단어를 사전에 등록하였다.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으나 알맹이가 없는 대사가 왜 히트했을까? 멕시코 대중은 그의 장황한 대사를 통해서 스스로의 언어습관이 패러디된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스페인어권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정하듯이, 예의를 갖춘 어법이 발달하였다. 정중한 표현일수록 격의 없는 표현보다 단어 수가 많고 문장이 길어지게 마련이다.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예를 들어보자. ‘물 좀 주세요.’하고 말하는 것과 ‘이런 부탁을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물 한 잔

을 가져다주시는 친절을 베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하는 것의 차이이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예이지만, 멕시코에서는 어려운 사이일수록 후자와 같이 길고도 정중하게 부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로 인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농담거리가 되기도 한다. 칸틴플라스는 이런 예절 어법과 같은 언어습관을 비틀고 과장하였다.

멕시코 작가 비센테 키라르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스페인어 사전에 나온 뜻풀이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단순히 내용 없이 형설수설 말만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남는 것’이다. 난처한 상황,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야 한다. 그의 예명 칸틴플라스의 유래도 여기에 있다. 젊은 시절 천막 유랑극단에서 얼떨결에 사회를 보게 된 모레노는 대사가 생각나지 않자 잠자코 있을 수는 없어서 즉흥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이 ‘술집(cantina)에서 왔나? 왜 그렇게 오바(inflas)를 하는 건가?’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거기에서 예명이 나왔다는 설이 있다. 극 중 칸틴플라스는 여러 상황에서 ‘칸틴플라스 어법’을 사용한다. 위기를 모면할 때,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유혹하려고 얼을 빠지게 할 때,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대를 조롱할 때, 상대를 설득하고 싶을 때 장황하고 속사포같은 임기응변으로 궁지를 모면하기도 하고 상대의 말문을 막히게 하여 상황을 주도하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칸틴플라스가 서민들의 언어습관을 영화에 본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 이른바 멕시코 영화의 ‘황금기’였는데, 영화 속의 언어가 멕시코 사회를 대변하지 못했다. 멕시코의 수필가 카를로스 몬시바이스에 의하면 멕시코 영화 황금기보다 조금 앞선 1920년대만 해도 연극계에서는 대사에서 스페인식으로 발음할 것인지, 아니면 멕시코식으로 발음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 중이었다고 한다. 몬시바이스는, 칸틴플라스 이전에는 정확하고 바른 어휘의 대사처리가 주도하였으며, 펠라디토 즉 하층 건달과 같은 인물



루피노 타마요, 「칸틴플라스 초상」

들의 말투는 영화에서 일반적이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칸틴플라스가 등장함으로써 펠라디토의 말투가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한국의 경우, 말씨란 계층보다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와 억양을 갖춘 사투리의 형태로 변이를 보인다. 특정한 지역에서 사회적인 계층에 따른 언어습관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그 넓은 면적을 고려하면 지역에 따른 사투리의 변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는 식민지였던 신대륙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한 나라 안에서 언어의 균질성이 유지되어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빈부의 차가 극과 극을 달리는 멕시코에서는¹⁾ 한 지역에서도 사회적 계층에 따라 어휘와 억양이 큰 차이를 보인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멕시코시티에서 중산층 이상 또는 지식인이 쓰는 스페인어와, 칸틴플라스의 출신지역인 테피토와 같은 지역의 빈민층의 스페인어는 확연하게 다르다. 또한 ‘딸기족’이라고 부르는 상류층 백인 젊은이들의 말씨는 같은 상류층 말씨와 억양과 어휘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멕시코인의 말투를 가리켜서 ‘노래하듯이’한다고 하는데, 바로 펠라디토 말투에서 그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한 문장에서 억양의 고저가 짧게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이다. 칸틴플라스는 이러한 독특한 리듬과 높낮이, 그리고 풍부한 속어와 은어를 곡예사가 저글링을 하듯이 자유자재로 구사함으로써 감칠맛 나는 캐릭터 구축에 성공했다. 단순한 슬랩스틱 코메디에 의존했다면 이런 성공은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칸틴플라스 말고도 페드로 인판테(Pedro Infante)와 같은 당대 최고의 배우들도 서민 또는 하층민 연기를 하긴 했다. 그러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멕시코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는 원주민과 스페인계의 혼혈, 즉 메스티소이고 소수만이 백인인데, 상류층은 주로 백인 또는 피부빛이 밝은 메스티소이고, 나머지 층, 특히 서민층은 피부가 구리빛인 메스티소가 대부분이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1) 멕시코 최고의 부자인 카를로스 슬림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힌다. 반면 빈민층은 한국의 빈민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한다.



디에고 리베라, 「연극의 역사」

주연배우는 대개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도맡아 했다(지금도 멕시코에서는 연속극의 주인공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백인 배우들이 많이 등장한다). 피부가 까만색이면 하인이나 악역을 주로 맡게 된다. 부잣집 ‘범생이’ 도련님 같이 생긴 미남배우 페드로 인판테와 같은 인물은 아무리 하층민 말투를 써도 칸틴플라스만큼 실감나는 연기를 할 수는 없다. 피부색이 어두운 대다수의 대중들은 자기와 똑같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보란 듯이 성공한, 미남도 아니고 왜소한 체격의 메스티소 배우 마리오 모레노가 자기들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동질감과 대리만족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배우 마리오 모레노는 그가 연기한 칸틴플라스와는 달리 진지한 사람이었다. 고급 차에 비행기, 호화주택을 소유하며 고가 미술품을 수집하고 고위 정치가와 교류하는 상류층이었지만 대중은 털 가진 자의 편에 서는 칸틴플라스라는 영화 속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미지를 사랑했다. 대중의 기억 속에는 소박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실제로 마리오 모레노는 성공한 후에도 어려운 이들을 잊지 않고 자선사업에도 지속

적으로 힘을 써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가 있다. 멕시코시티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인 인수르헨테스 거리에 위치한 ‘인수르헨테스 극장’ 외벽에는 커다란 규모의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제목은 「연극의 역사」인데 한 가운데에 칸틴플라스가 두 팔을 벌리고 서있다. 그의 왼쪽에는 층층이 쌓인 금괴 위에 올라선 부자들이 갈채를 보내며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는 그 돈을 받아서 오른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네준다.

칸틴플라스라는 인물의 또 다른 매력은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다. 어쩌보면 스페인어권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악동(pícaro)과 비슷하다. 영화 속에서 칸틴플라스는 횡설수설 어법으로 거침없이 권위를 무너뜨린다. 가령, 그를 스타덤에 오르게 했던 1940년작 영화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Allí está el detalle)에서 백수건달에 문맹자인 칸틴플라스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데, 그의 구어체와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문어체는 큰 대조를 보인다. 알아듣기 어려운 딱딱한 법정용어로 질문하는 검사에게 칸틴플라스는 주눅 들지 않고 시종일관 당당하게 쏘아붙인다. 예를 들면, 검사는 이름을 물을 때 고어체 어법을 동원하여 “당신의 재주가 무엇이오?”(¿Cuál es su gracia?)라고 질문한다. 칸틴플라스는 대변에 “말재주가 있소이다”(Las facilidades de palabras)라고 대답해서 웃음을 자아낸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이 오고간다. 결국 재판 도중에 진짜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되고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제는 재판장이 칸틴플라스의 말투가 전염되었는지 엄숙한 말투와 어휘를 버리고 칸틴플라스와 같은 억양으로, 평이한 단어로 말을 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 말투를 따라하게 된다. 그걸 본 칸틴플라스는 “거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니까 다 알아듣고 오해가 없잖아”하고 만족해한다.

다만 그가 젊었을 때 출연한 흑백영화에서는 이렇듯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당당한 캐릭터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다가 이후에 출연한 충천연색영



영화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파스파루트로 분한 마리오 모레노

화에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 수그러들고, 아무래도 나이가 든 탓인지 교훈적인 메시지를 남기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아쉬워했지만 그와 함께 성장하고 나이를 먹은 대중들은 여전히 그의 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예를 들어 「대사님」(Su excelencia, 1966년)에서는 냉전을 소재로 하는데, 50대 중반이 된 칸틴플라스는 달러랜드(미국)편과 페페슬라비아(소련)편으로 양분된 세상에 바나나 공화국을 패러디한 ‘코코넛 공화국’의 대사로 출연하여 각국대표가 모인 회의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연설을 하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을 비판하고 제3세계의 공정무역, 선진국의 기술 이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춘철살인의 ‘칸틴플라스 어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칸틴플라스는 힘없는 사람, 덜 가진 사람을 대신하여 권위를 면전에서 비웃어주었다. 현실에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말재주 덕분에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비웃고도 살아남는다. 그러나 상스러운 욕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대중들은 어찌 보면 뻔뻔하기까지 한 그를 보며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또한 그는 헐리우드 히트작에 출연함으로써 멕시코 대중을 기쁘게 해주었다. 1956년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파스파르투(Passepartout) 역으로 등장하였는데, 이 영화는 칸틴플라스를 위한 영화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원작과는 달리 필리어스 포그(Phileas Fogg)가 아닌 파스파르투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필리어스 포그가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보다 파스파르투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 훨씬 더 멋있다. 칸틴플라스는 영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속칭 ‘빈폴 자전거’라고 하는, 앞바퀴가 거의 사람 키만큼 크고 뒷바퀴가 작은 패니파딩 자전거를 타고 런던을 유유히 다니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한다. 영어가 서투른 그를 위해 극중에서도 영어와 더불어 펠라디토 특유의 스페인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설정하였고, 대사가 적은 대신 액션 장면이 많아서 거의 액션히어로 수준의 연기를 보였다. 원작에도 없는 스페인의 투우장 장면에서 모레노는 마타도르의 면모를 보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기차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차를 추격하는 원주민을 무찌른다. 심지어 엔딩크레디트에도 필리어스 포그 역을 맡은 데이비드 니븐을 제치고 제일 먼저 칸틴플라스의 이름이 뜬다. 칸틴플라스는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 코메디 뮤지컬 부문 최우수 남우상을 수상했다.

이후 미국 영화에 2편 더 출연했지만 〈80일간의 세계일주〉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 밖에도 미국 감독들의 제의를 받았으나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어쨌든 멕시코 대중은 영어도 못하고, 미남도 아니고, 피부색도 어두운, 이웃집 아저씨같은 모레노가 헐리우드 대작에 출연하고 골든글러브상까지 타온 것을 보고적지 않게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돌로레스 텔 리오와 같이 일찍이 1920년대 헐리우드로 진출한 멕시코 배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칸틴플라스

만큼 멕시코 국민들을 짜릿하게 해준 사람은 없었다.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연예인 중에서 애칭이 없으면 대중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칸틴플라스를 사랑한 대중들은 그를 친근하게 엘 차토(el chato), 즉 납작코라고 불렀다. 1983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그가 출마한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기존 정치인들에게 식상한 멕시코 국민들은 아마도 영화에서 보았던 정의롭고 따뜻한 정치를 펼치는 칸틴플라스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었을 것이다.

애연가였던 그가 폐암으로 인해 1993년 82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은 떼를 지어,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 모셔진 그의 관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살리나스가 문상을 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제 아무리 인기가 많은 코미디언이라고 해도 칸틴플라스가 누린 영광을 맞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모레노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한국의 희극 배우들이 많지만 모두 흘러간 인물이 되었을 뿐이다. 배삼룡, 구봉서, 서영춘, 이기동. 이들은 한때를 풍미했으나 이제는 작품 접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칸틴플라스는 여전히 전파를 타고, 사람들 입에 고유명사, 동사, 명사의 형태로 오르내리며, 멕시코, 나아가서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랑을 받는 신화적인 존재로 등극하였다.

김유리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강사